

안녕하세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두드러기/혈관부종/아나필락시스 워크그룹을 소개 드립니다.

두드러기/혈관부종/아나필락시스 워크그룹은 2010년 11월 1일 을지의대 안영민(팀장) 장광천(간사)외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총 29명의 회원이 모여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워크그룹은 면역 반응 기전이 유사한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진료와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적인 진료 추세에 맞추어 해당 질환의 국내 데이터 산출 및 진료 지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대 팀장 이수영(간사; 장광천)교수, 3대 팀장 예영민(간사; 신미용)교수를 거쳐 2018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교수가 팀장을 맡아 이끌고 있으며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다양한 분야의 임상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쇼크라고 알려진 아나필락시스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식품이나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소아와 성인 모두 증가하여 단체 급식이나 외식 등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많이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Orphan disease"로 생각된 만성두드러기의 발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오말리주맙을 포함한 새로운 치료 및 진료지침이 주로 미국/유럽/일본 학회를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실정을 반영한 진료지침은 없어, 일선 진료현장에서 만성두드러기의 이해와 치료에 대한 임상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산하 두드러기/혈관부종/아나필락시스 워크그룹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식품알레르기/아토피피부염연구회와 함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국내 성인/소아 아나필락시스 현황에 대한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진행하였고, "한국 아나필락시스의 진료"를 발표하였으며, 국내 아나필락시스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밝혀 일선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전성 혈관부종이나 식품의존성-운동유발성-아나필락시스, 벌독아나필락시스, "만성두드러기의 진단과 치료: 전문가 의견서" 등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고,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심리적 부담 조사 연구를 성인과 소아에서 각각 진행 완료하여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연구지원을 받아 만성두드러기 치료에서 항히스타민제의 증량과 H2-수용체 길항제 추가요법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만성 두드러기 환자 코호트 구축과 다양한 두드러기 환자의 국내 데이터 산출 및 수술이나 국소마취제와 연관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워크그룹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카드를 제작하여 2017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교사용 응급처치매뉴얼 제작에도 인용될 예정으로, 의료인과 비의료인에게 아나필락시스 대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만성두드러기 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2018년 12월 1일 두드러기/혈관부종/아나필락시스를 주제로 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워크그룹은 더 많이 노

력하고 연구하여, 진료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들을 확립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여러분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이외에도 사진을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도 함께...